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분쟁 '일단락'

법원, 롯데마트공사중지가처분 기각

광주 월드컵경기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업체인 도시종합개발(주)이 인근에 대형 할인점을 신축중인 롯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2일 롯데건설이 광주월드컵경기장 내에 짓고 있는 롯데마트를 신축하면서 설치한 철제구조물로 인해 인라인스케이트장 영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시종합개발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신청한 '방해물제거 등 가처분'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롯데건설은 광주시로부터 주차장 부지 54%를 사용할 수 있다는 승낙을 받고 해당구역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했을 뿐 도시종합개발 측이 점유·사용권을 지닌 주차장 부지 29%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시종합개발의 요구대로 철거 가처분이 집행되면 본안소송의 승소 판결과 같은 결과를 초래해 철거청구의 본안소송이 사실상 무의미해 질 염려가 있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또 본안판결에 의해 철거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만료를 앞둔 도시종합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가혹한 부담을 주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명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광주시가 철제구조물 설치를 승낙하기 전 도시종합개발 측과 사전협의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도시종합개발이 제3자인 롯데건설에 철거물 제거를 구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주장(광주시의 계약위반)은 별론으로 한다"고 밝혀 광주시의 이중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이 이처럼 도시종합개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광주월드컵경기장 내에 짓고 있는 롯데마트 신축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완도해경, 선박매매 사기범 검거

완도해양경찰은 12일 선박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48·완도군 완도읍)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 알선업을 하는 이씨는 지난해 6월 이미 매매된 선박 J호(4t)를 김모(52)씨에게 판다고 속여 25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월까지 목포·여수·영광·해남·완도·부산 등 서남해 일대에서 어민 10명에게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이씨는 주로 소형선박에 의존해 조업을 하는 영세한 어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피해자 중에는 70대 노인도 끼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이날 오후 2시께 해남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잠복중인 수사관들에 검거됐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 도박 PC방 '몸통' 검거 통해 본 피해 실태

판돈 잃고 수수료 떼이고 '이용자는 봉'

프로그램 공급업체 하루 2억원 수익

전문 도박꾼 개입 · 안방에서도 접속

광주북부경찰이 12일 광주 등 전국 대도시에 100여개의 성인 PC방 가맹점을 모집한 뒤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성인 PC방 본사에서 압수한 증거물.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성인 PC방의 도박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하루 평균 2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이용자 10명 가운데 9명은 돈을 잃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도주하던 30대가 추락사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나, 공급업체들은 수시로 서버를 옮기고 안방에서도 접속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20일 만에 32억 챙겨=광주 북부경찰은 12일 전국 100여 개의 성인PC방 가맹점에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 개장 등)로 불법 성인 PC방 본사인 CJ솔루션 대표 장모(39·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씨 등 5명과 광주 총판업자 최모(36·광주시 북구 신안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서버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자인 김모(31·천안시 목천읍)씨 등과 함께 불법도박 게임인 '뉴파트너'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뒤 광주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에 100여개의 가맹점을 모아 불법 도박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20일동안 전국 100여개 가맹점의 게임 이용고객들을 통해 유통된 돈 154억원 가운데 36억1천만원을 딜러비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6천500여만원과 컴퓨터 본체 67대, 거래통장과 매출내역 장부 등을 압수했다.

◇90%가 돈 잃어 =장씨는 가맹점당 200만원씩을 가입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용자들에게선 게임당 판돈의 1%씩을 딜러비로 챙겼다.

가맹점도 도박 이용자의 게임당 판돈의 5%를 챙기고, 환전 수수료 5% 등 총 10%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예를 들어 도박 이용객이 한판에 10만원을 땄다고 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바꾸면, 1만1천650원(딜러비 7천원·환전수수료 4천650원)을 수수료로 떼고 8만8천350원만 손에 쥐게 된다.

여기에 전문 도박꾼이 투입돼 일반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도박을 하다 북부경찰에 붙잡힌 손님 120여명 가운데 90% 이상은 돈을 잃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용자들은 사법 당국의 단속에 걸려 도박전과까지 안게됐다.

◇범행수법 갈수록 진화=도박 프로그램 '뉴파트너'는 가입비 200만원만 주면,가정 집에 설치할 수 있다.

더욱이 공급업체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서버를 하루에 3~4차례씩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철저하게 본사 서버를 숨겼다.쉽게 뿌리 뽑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고양 400㎜…수도권 '물폭탄'

양주서 귀갓길 중학생 남매 실종

12일 서울과 경기도 등 중부지방에 시간당 20~50㎜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도로와 철로가 침수돼 도로교통과 지하철 등이 끊기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지역별 강수량은 서울 207.0㎜를 비롯해 ▲고양 369.5㎜ ▲동두천 197.0㎜ ▲홍천 151.5㎜ ▲문산 149.0㎜ ▲인제 136.0㎜ ▲춘천 131.0㎜ ▲인천 123.5㎜ 등이다.

특히 경기도 고양군 주교동(390.0㎜)과 의정부시 신곡동(300.0㎜), 고양군 능곡동(298.0㎜), 양주시 광적면(254.0㎜) 등 경기 북부지방에 폭우가 집중됐다.

이날 폭우로 오후 3시10분께 양주시 백석면 백석중학교 2학년 박소연(14)양과 1학년 재범(13) 남매가 귀갓길에 도랑을 건너던 중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또 서울 동부간선도로 등 도로 3곳이 통제됐으며, 한강 잠수교 구간도 통행이 금지됐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에는 철도와 지하철도 일부 구간이 물에 잠겨, 철도운행이 3개 구간에서 일시 중단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장마 18일 끝난다

예년에 비해 3~5일 빨리 시작됐던 이번 장마가 오는 18일을 전·후로 끝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장마전선이 경기 북부지역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14일께 다시 남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시작했던 장마가 오는 18일을 전후로 끝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막바지 '물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제4호 태풍 '빌리스'가 대만을 거쳐 중국 대륙으로 길 머리를 잡으면서 수증기를 잔뜩 품은 공기 덩어리를 한반도 쪽으로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나원참 김종두 〈6878〉

교육위원 입후보 예정자 고발

중앙선관위는 12일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광주시 교육위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S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최진만기자 man21@

중고차 미끼 다단계 사기 20억 '꿀꺽'

쌍나팔

○…중고차 매매사업을 미끼로 다단계 사업을 벌여온 유사수신사업자들이 경찰에 덜미.

○…광주 남부경찰은 12일 중고차 매매사업을 미끼로 가입자를 모집한 뒤 2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사기)로 박모(40)씨 등 3명을 구속.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4월 10일께 박씨가 운영하는 광주시 남구 송암동 모 자동차 매매업체 사무실에서 곽모(42)씨에게 "지분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매주 8만원을 지급하고 넉 달 뒤에는 이익금을 포함, 14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시켜 투자케 하는 등 그동안 모두 561명으로부터 20억4천여만원을 끌어 모은 뒤 이를 편취한 혐의.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